

## 고이즈미 일본 총리 주최 만찬답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 각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총리 각하와 일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리께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난 2월 나의 취임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께서도 직접 방문하거나 서한을 보내서 취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와 나는 오늘 오전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국의 진정한 동반자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총리께서 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나는 서울에서 각하를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이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신의를 소중히 여기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는 각하의 진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일본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나 역시 한국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총리께서 겪어 오신 난관과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성공해야 합니다. 일본 경제의 부흥은 우리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의 경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두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자 투자유치의 파트너이고, 한국도 일본에게 세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나는 일본의 경제개혁을 이끌고 계신 각하의 강한 신념과 지도력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한·일 관계는 때때로 과거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양국이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월드컵 대회를 지켜보면서 그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양국 국민들은 공동의 목표 아래 힘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 목표는 물론 월드컵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최선을 다했고, 많은 국민들이 양국을 오가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소득이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1950년대에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연합(EU)의 기치 아래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협력에도 역시 경제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한국 정부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변영의 동북아 시대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미국과 함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신 각하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

고이즈미 총리대신 각하의 건안과 한·일 국민간의 우정, 그리고 양국 모두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 축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